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

The Pandemic Scenes of Pyongyang: Focus on the Photographs of *Rodong Sinmun* in 2018~2021

안진희 Ahn Jin-Hee**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andemic scenes of Pyongyang, the capital of North Korea, through Rodong Sinmun photographs. Based on the theatricality that citizens want to see and be seen at the same time, scenes are created by developing this tendency in the background of the city. This paper considers that scenes are composed of “place personality,” “groups of people,” and “purpose of actions,” and examines Rodong Sinmun photographs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these scenes. To this end,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wo groups of photos divided by the time when COVID-19 occurred. Next, the content analysis is visualized on the Pyongyang map based on the geographic coordinate system. Pyongyang’s pandemic scenes were visualized in the southeast of the Daedong River. It is a large-scale, new, sanitary city in terms of its appearance, but its actual productivity has faded. On the other hand, amid the changes caused by the epidemic worldwide, it is required to consider whether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can still be limited to the term “specificity.” The dramatic device of the Rodong Sinmun photographs, which is set in the city, plays a part in the new normal that the pandemic has brought to the world. However, as it intervenes more in daily life than before the pandemic, the Pyongyang pandemic scenes have moved away from the new normal at the individual level.

Keywords: Pandemic, COVID-19, Urban Scene, Rodong Sinmun, Pyongyang, North Korea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의 발생 이후 신문과 방송은 여러 나라의 관련 현

황을 목도하고 국가별 대응 체계를 비교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는 전 세계가 전에 없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보의 공유는 하나의 해결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구글 뉴스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지도로 전 세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공유하고 있다.¹⁾ 그러나 이 지도에서 정

* 이 논문은 통일연구원 주최 2021년도 북한도시포럼 발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강사 | Lecturer, Graduate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 ginnyahn@gmail.com

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국가가 있다. 북한은 코로나 19 관련 현황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감염자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이규창, 나용우, 이상신, 이우태 외 2020, 19; 오승준, 하승희 2020, 9).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제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바 있다(오승준, 하승희 2020, 3). 북한이 기존의 폐쇄성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BBC는 ‘비밀국가’란 단어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북한을 진단했다.²⁾

관련 정보와 국경의 불투명함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보도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식을 시각화한다. 2021년 9월 9일 건국절에 진행된 일명 ‘방역복 열병식’이 대표적이다.³⁾ 이전과 다른 열병식 이미지는 다수의 해외 보도 매체로부터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냈다.⁴⁾ 한층 더 비밀스러워진 국가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이미지를 통해 자신들을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국가 행사가 화려하고 주목성을 가질수록 그 이면에 위치한 생활상은 더욱 감춰질 수 있다. 국경 봉쇄는 경제적 여파로 이어지며, 이는 여러 분야의 산업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⁵⁾ 북한의 경제 산업 및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체로는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하 로동신문)이 있다. 로동신문은 우리나라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북한 지도자의 모습이나 대규모 국가 행사 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근로, 선전 등과 관련된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도한다. 이 논문은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통해 팬데믹에 놓인 북한의 도시를 살펴보

고자 한다.

어빙 고프먼(Goffman 1967, 200-201)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가 만들어내는 ‘씬(scene)’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서 사회적 장치는 행동하는 개인의 태도, 행동을 좌우하는 환경적 요건, 행동을 촉발하는 장소적 관행으로 구성된다(Goffman 1967, 201-205). 그는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행동이 연극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인의 공연(performance), 공연자의 외관(appearance), 공연이 이뤄지는 무대(setting)라는 물리적 요소의 합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Goffman 1959, 22-24). 테리 클라크(Clark, Terry 2007)는 씬 개념을 현대 도시라는 현실화된 무대를 통해 제시하는 한편, 씬이 도시의 고유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특질임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씬의 유형으로 디즈니 천국(Disney Heaven), 화려한 라라 랜드(LaLa Land Tinsel), 이국적임(Exoticism), 쿨한 세계주의(Cool Cosmopolitanism), 도시풍(Urbanity) 등이 있다(Clark 2007, 19-20).

이 논문은 로동신문 보도사진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씬이 장소의 성격, 등장인물의 행동 목적, 모인 인원 규모의 합으로 연출된다고 규정한다. 북한 뉴스는 ‘사건’이 아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보도한다(한국언론학회 1994, 215). 북한의 보도 매체는 씬 이론이 제시하는 연극성을 포함하며, 로동신문 보도사진은 북한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사회적 장치를 프레임으로 규격화한 것과는 같다.

1) <https://news.google.com/covid19/map> (2021년 11월 1일 검색).

2)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408913> (2021년 11월 1일 검색).

3)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방역복 열병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orth-korea-kim-pandemic/2021/09/08/31adfd74-f53-11eb-87e0-7e07bd9ce270_story.html (2021년 11월 2일 검색).

4) 위의 자료 (2021년 11월 2일 검색).

5) 이용희(2021)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국경의 폐쇄가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북한 전체 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수출입이 중단되면서 장마당의 상품이 고갈된 것과 관련이 있음.

썸을 연출하는 위 세 가지 요소는 이들의 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만권의 사회 건설의 노력을 시각화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을 기점으로 썸의 구성 요소에 변화가 나타나는가? 팬데믹이라는 변수에 대응한 북한의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시각적 특징으로 귀결되는가? 이 논문은 북한의 수도 평양의 팬데믹 썸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찰에 앞서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주민의 자율성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썸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생활 패턴, 공통된 계급 정체성을 가진 대규모 집단이 도시에서 사라지고, 도시민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해 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상현, 장원호 2018).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는 로동신문에서 북한 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다. 북한의 도시를 ‘극장 국가’(Theatre state, Geertz 1980)로 보는 시각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⁶⁾ 연기 행위를 공유하고 연극에 동참함으로써 국민 전체는 동일한 시나리오에 얽힌 연기자며, 이를 통해 전개되는 연극은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다(정병호 2010, 34).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논문은 평양의 팬데믹 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음의 가설을 세워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 건설에 요구되는 북한의 문화적 보편성이 평양이라는 도시를 무대로 하는 일종의 연극이라면, 보도 매체는 방역 체계, 이동의 제한, 비대면 생활 등으로 요약되는 팬데믹 시대의 보편성을 극화(dramatization)하여 보여줄 것이다.

2. 연구 대상과 범주

이 논문은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대상으로 평양의 팬데믹 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도 매체가 극화된 새로운 문화적 보편성이라는 가설을 검토한다. 따라서 로동신문 보도사진의 수집에 있어 코로나19의 발생 시기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북한은 2020년 1월 21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국경봉쇄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함으로써 코로나19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오승준, 하승희 2020, 10). 이에 따라 이 논문은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자료의 확인이 가능한 2021년 8월까지를 ‘코로나19 발생 후’ 시기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를 ‘코로나19 발생 전’ 시기로 한다.

평양은 위 기간 동안 보도된 사진을 수집하기 위한 장소적 범주다. 북한 지도자의 통치, 당 대회, 내각 총리의 현지 요해 등을 제외한 북한의 생활환경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사진을 연구 자료로 선정한다. 수집 기간, 장소적 범주, 촬영 대상의 조건에 따라 선정된 보도사진은 총 3,533장이다.⁷⁾

3. 연구 방법

팬데믹 시기 평양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논문은 코로나19 발생 시기 전후를 기준으로 선정한 두 그룹의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비교하고 이를 지도에 시각화한다. 두 그룹 간 비교를 위해 앞서 선정한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이 논문이 제시한 썸 구성 요소인 ‘장소성격’, 주민들의 ‘행동목적’, 모인 주민의

6) 클리퍼드 기어츠(Geertz, Clifford 1980, 4)는 통치자의 권력이 정치 제도가 아닌 국가 권력을 공연하는 과시적 재현을 통해 이뤄진 1900년대 발리 왕국을 통해 극장 국가 개념을 제시했음. 권현익, 정병호(2013), 전상인, 김미영, 조은희(2015), 와다 하루키(Haruki, Wada 2014)는 북한을 극장 국가로 진단했음.

7) 주민이 없는 사진은 연구 자료에서 제외했음. 다만 건축물 준공에 관한 보도사진은 건축물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연구 자료에 포함시켰음.

‘인원 규모’에 따라 분류한다(<Table 1> 참조). 그다음 두 그룹의 보도사진의 씬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별로 이들의 증감 여부와 월별 추이를 비교한다. 위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평양의 팬데믹 씬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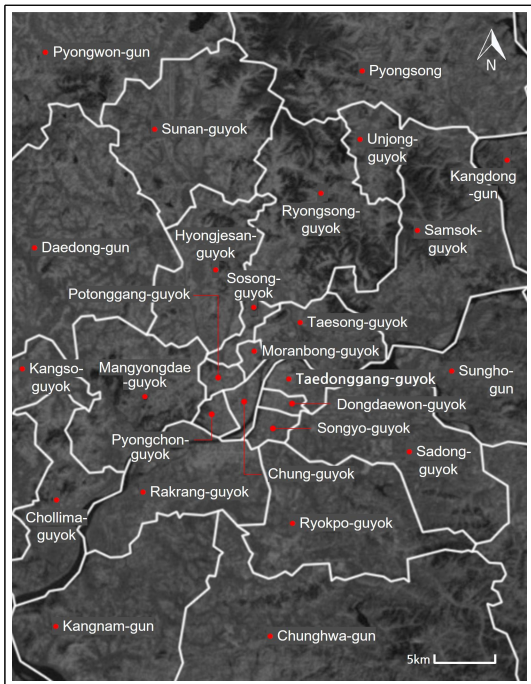
에 시각화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이하 엑셀)의 3D맵은 엑셀 시트에 입력된 지리좌표계(Geographic Coordinate System, GCS) 정보를 기반으로, 각 좌표와 연계된 데이터 값과 필터 값을 열의 확

Table 1 _ The Scene Components of Rodong Sinmun Photographs

Scene Components	Details	Examples
Character of Place	Industrial Facilities	Factory/Industrial Complex, Repair Stations, Power Plants,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gricultural Facilities	Agricultural/Stockbreeding/Fishing Industry, Related Research Institutes
	Cultural Facilities	Square, Theatre, Museum, Monument, Revolutionary Historic Site, Exhibition Hall, Gymnasium, Swimming Pool, Stadium
	Living Facilities	Shop, Restaurant, Public Bath, Department Store, postal facility, Publishing House, Family Houses, Neighborhood Unit
	Educational Facilities	Nursery School, Orphanage, School, University
	Transportation Facilities	Infrastructure such as Airport, Railway Station, Road, and Means of Transportation
	Safety and Health Facilities	Hospital, Clinic, Preventative Measure Office, Sanatorium, related Research Institutes
	Entertainment Facilities	Amusement Park, Public Park, Zoo, Water Park, Hotel, Inn
Purpose of Action	Production Activities	Encouragement of Production Activities in Industrial Facilities, Research Activities, Management and Beautification of the Site in Charge
	Propaganda Activities	Political Business Meetings, Rally, Agitation and Propaganda Activities, Industrial Exhibition
	Commemorative Activities	Visiting Monuments, Visiting Historic Sites/Historical Halls, Exhibition of Photos, Art, Souvenirs, and Plants related to Leaders and Parties, Banquets, Commemorative Reports, Exhibition of Leader's Achievements, Visiting the History Room in Industrial Facilities
	Construction Activities	Construction or Completion of Landscapes, Disaster Prevention and Restoration
	Performance Activities	Drama/Music/Dance Performances, Parade Ceremonies, Group Gymnastics, People's Hall, Celebration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Treatment, Nursing
	Educational Activities	Childcare, Lectures and Practices, Teaching Methods Research, School Physical Education, Training in Production Areas
	Travel Activities	Foreigners Entering and Leaving the Country, Residents Traveling Overseas or Other Areas, Boar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Visiting Activities	Neighborhood Unit/Retired Soldier/Educator/Student/Athlete/Child, etc. Individual and Family Visits to Homes and Institutions
	Physical Activities	Sports Competitions, Physical Training, Public Sports
	Commercial Activities	Commerce and Consumption
	Leisure Activities	Recreation, Entertainment, Tourism, Horseback Riding, Folk Games, Spectacles
Number of People	1-20	Political Education Project for Production Units, Visiting Monuments in Industrial Facilities, Visiting Monuments of Foreigners, Preventative Activities, Home Visits
	21-100	Construction works, Performances to Increase Production and Encourage Workers to go to work
	101-500	Visiting Exhibitions, Leisure Activities in Large Open Spaces, Watching Sports Events
	501-2000	Monumental Events Balls, Concerts/Plays/Performances
	2000-	Parade Ceremony, Mass Game, New Year's fireworks

산 정도로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 지리좌표계 정보는 로동신문 보도사진에 나타난 장소의 위치다. 데이터 값은 보도된 장소를 포함하는 평양 행정구역이다 (<Figure 1> 참조).⁸⁾ 같은 장소에 대한 보도 횟수가 늘어날수록 행정구역 데이터 값도 증가하며, 이는 열의 확산 정도를 일차적으로 결정한다. 필터 값 1은 특정 장소에 주민이 모인 정도로, 규모에 따라 1에서 5 단계로 나뉜다. 보도사진에 많은 주민이 모여 있을수록 단계는 올라가며, 열 확산 정도를 이차적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필터 값 2는 ‘행동목적’별 분류로, 12가지의 ‘행동목적’ 중 특정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Figure 1 _Pyongyang and Surrounding Administrative Districts



8) 평양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18개 구역(대동강구역, 대성구역, 동대원구역, 락랑구역, 력포구역, 룡성구역, 만경대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사동구역, 서성구역, 삼석구역, 선교구역, 순안구역, 은정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형제산구역)과 2개 군(강동군, 강남군), 그 외 평양에 인접한 교외 지역(평성시, 평원군, 대동군, 순안구역, 강서군, 천리마군, 중화군)을 포함.

두 그룹의 사진을 비교하고 맵핑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 논문은 분석 결과의 도출(2장), 평양의 팬데믹 썬 시각화(3장), 팬데믹 썬의 해석(4장), 시사점 제시(5장)의 구성을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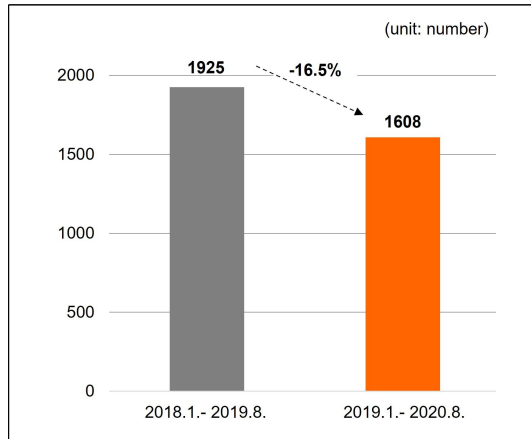
II. 코로나19 발생 이후 로동신문 보도사진의 구성 요소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소성격’ 비교

2020년 1월 초반을 기준으로 평양을 배경으로 한 로동신문 보도사진은 그 이전보다 16.5% 감소했다 (<Figure 2> 참조).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계급교양관, 조선혁명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 보도사진에 관람객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장소성격’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부문은 문화 시설(60% 감소)과 교통 시설(64% 감

Figure 2 _The Number of the Photograph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소)이다(<Figure 3> 참조). 문화 시설은 광장, 극장, 박물관 등 인원이 밀집 가능한 시설, 교통시설은 국제공항과 철도역을 포함한다. 이들의 감소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장소 내 다수의 모임, 외국인과 북한 주민의 국내외 왕래가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반대로 생활 시설과 보건 시설에 관한 보도는 61%

와 51%씩 절반 이상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산업 시설의 경우 29% 증가했다(<Figure 3> 참조). 보건 시설의 증가는 방역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생활 시설과 산업 시설의 비율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후 ‘장소성격’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부문은 문화 시설과 교통 시설이다. 노동신

문 보도사전에 나타난 이들의 월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2019년 12월까지는 광명성절, 태양절, 인민정권 창건일과 같은 북한의 국가 기념행사일과 문화 시설, 교통 시설에 대한 보도 추이가 연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추이는 광장과 경기장 등이 국가 기념행사를 위한 장소로 쓰인 것, 그리고 행사 참석을 위한 북한 외부 방문객이 국제

Figure 3 _ The Number of Photographs by Details Classified According to “Character of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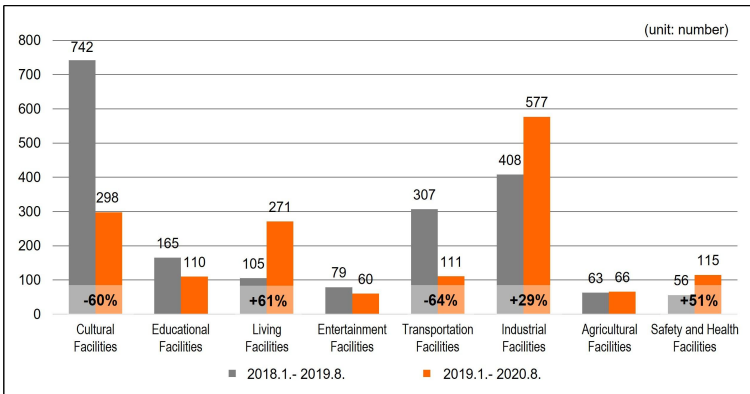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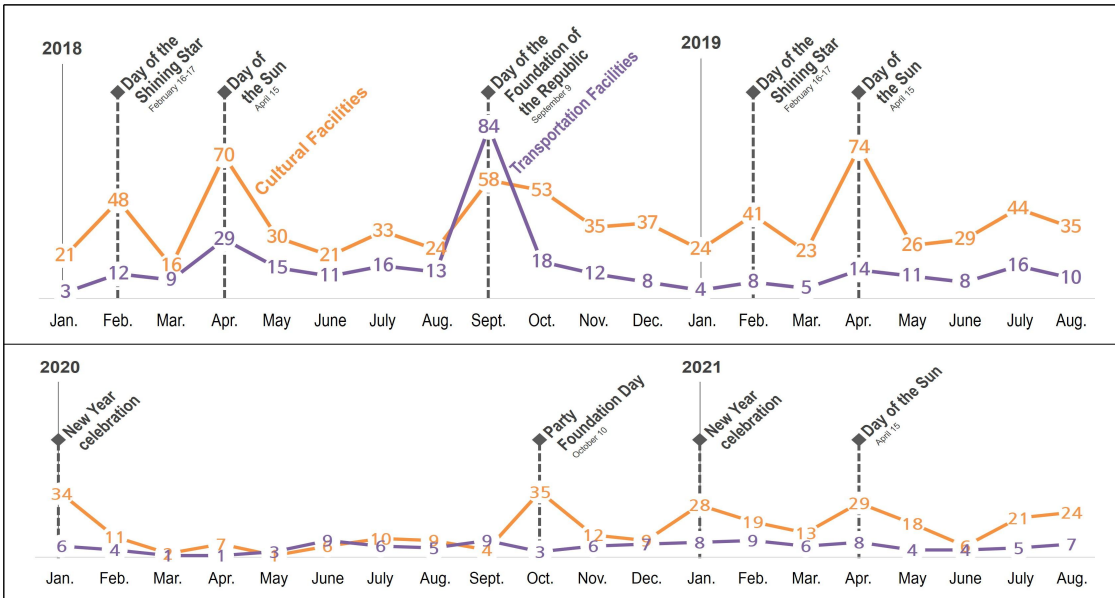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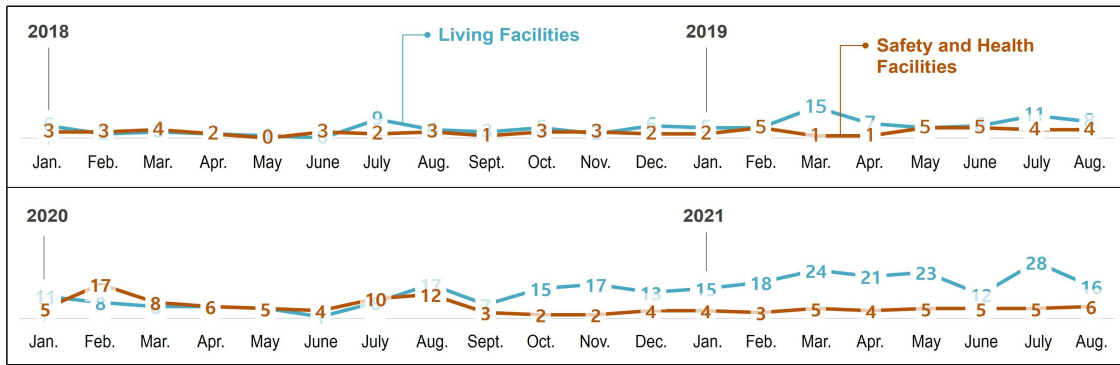


Figure 4 _ Monthly Trend of “Character of Place”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



Note: Cultural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in “Character of Place”

Figure 5_Monthly Trend of “Character of Place”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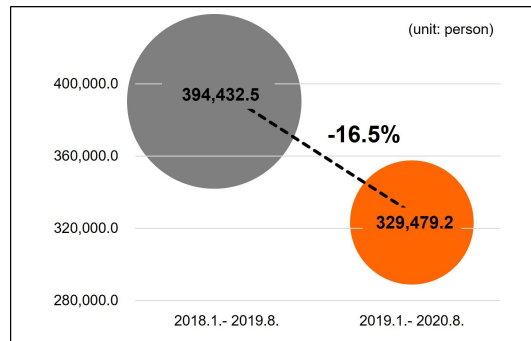
Note: Living, Safety and Health Facilities in “Character of Place”

공항과 기차역을 이용하는 것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국가 기념행사가 도시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함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Figure 4>를 보면 2020년 1월 초반에는 문화 시설과 교통 시설의 월별 추이에 증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조선로동당 창건일, 설날, 태양절과 같은 국가 기념행사에 따라 문화 시설 관련 보도의 증감 폭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비대면 방역 체계가 중점적으로 가동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도 교통 시설은 증감 폭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북한의 국경 봉쇄로 외부 방문객의 공항과 기차역 이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과의 관련 가능성이 높다.

‘장소성격’ 중 보건 시설은 2018년 1월과 2019년 8월 사이에 증감 폭이 거의 없으며, 2020년 1월부터도 2020년 2월, 7월, 8월을 제외하고는 그 수치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Figure 5> 참조). 팬데믹 시기에는 병원 등 보건 시설에 관한 보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상반기 동안에만 미미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로동신문이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의료진의 모습을 게재하는 한편, 북한의 관련 모습

Figure 6_ The Total Number of People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Photograp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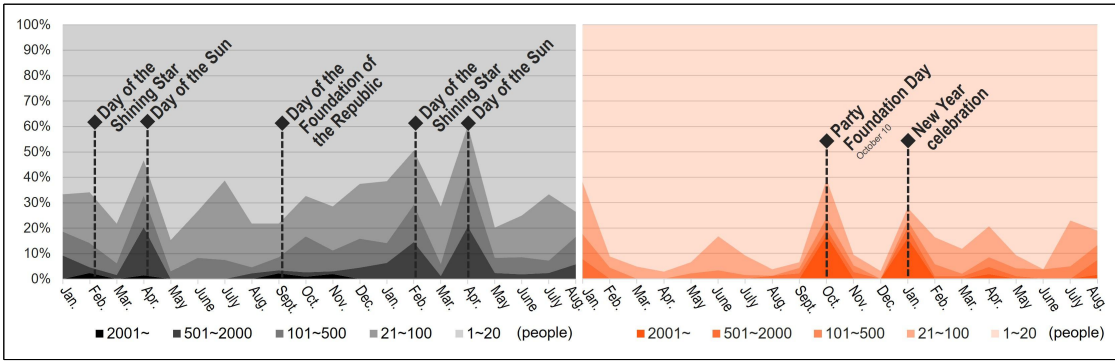


은 부재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오승준, 이승희 2020, 12). 생활 시설의 경우, 2018년 1월과 2019년 8월 사이에는 수치가 적은 반면 2020년 1월부터는 점차 증가 추세가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Figure 5> 참조).

2.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원규모’ 비교

로동신문 보도사진에 등장한 주민 수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총 394,432.5명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총 329,479.2명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16.5%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Figure 6> 참조).⁹⁾ 팬데믹을 고려하면 감소는 예상 가능하나 인원의 총합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아니다.

Figure 7 _ Monthly Trend of “Number of People”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로동신문 보도사진에 나타난 주민이 모인 정도인 ‘인원규모’의 월별 추이는 <Figure 7>과 같다.¹⁰⁾ ‘장소성격’의 월별 추이와 유사하게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시기가 국가 기념행사 여부와 거의 일치한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의 ‘인원규모’ 월별 추이에서는 모이는 인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조선로동당창건일이 있는 2020년 10월부터는 국가 기념행사 시기와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시기가 다시 일치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북한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규모 인원에 의한 국가 기념행사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것이 정통적 도시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파악할 수 있다.

3. 코로나19 발생 전후 ‘행동목적’ 비교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로동신문 보도사진에 나타난 주민의 주요 활동을 살펴본다. 기념 활동, 왕래 활동, 생산 활동은 그 이전보

다 71%, 96%, 21%씩 감소한 반면, 보건 활동, 선전 활동, 건설 활동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92%, 56%, 67%씩 크게 증가했다(<Figure 8> 참조). 높은 증감 세는 로동신문에 나타난 주민의 주요 활동 내용과 목적이 전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앞서 ‘장소성격’에서는 증가했지만 관련 활동은 감소한 경우다. <Figure 3>에서 산업 시설은 팬데믹 시기에 29% 증가한 반면, 이 시설에서 주로 이뤄지는 생산 활동은 <Figure 8>에서 21% 감소했다.

<Figure 8>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한 보건 활동, 선전 활동, 건설 활동의 월별 추이는 <Figure 9>과 같다. 보건 활동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그 전에 비해 추이가 급상승하여 <Figure 5>에서 보건 시설의 월별 추이가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 팬데믹 시기에 보건 활동이 보건 시설 외 장소에서 일어났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Figure 9>에서 선전 활동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추이가 크게 상승한다. 선전 활동이 이

9) 다음의 순서를 거쳐 주민 수의 총합을 도출함.

- ① 각 ‘장소성격’의 최소~최대 인원 규모 산출(산출식: 각 ‘인원규모’의 보도사진 개수×각 ‘인원규모’가 정한 최소 인원~최대 인원)
- ② 각 ‘장소성격’의 최소~최대 인원의 중간 값을 로동신문 보도사진에 등장한 ‘장소성격’별 인원수로 산정
- ③ ‘장소성격’별 인원수의 총합을 이 논문이 정한 기간 동안 로동신문 보도사진에 등장한 인원수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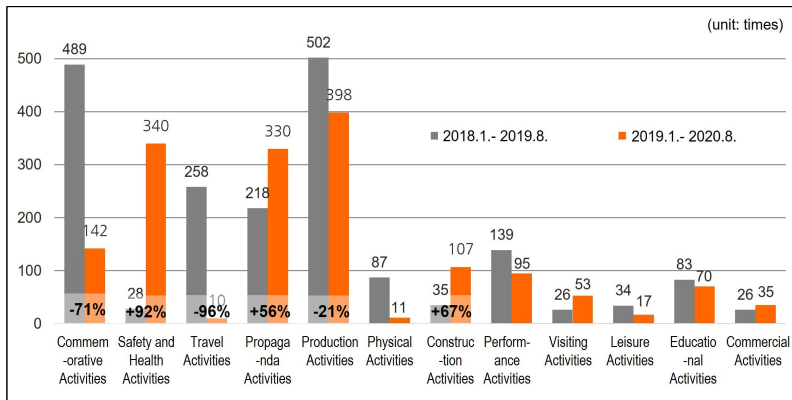
10) 최소 ‘인원규모’ 단개인 1~20명이 그래프에서 100%로 보이도록 설정한 그래프로, 구체적인 인원수보다는 각 월마다 모인 인원의 단계별 비율과 월별 추이가 나타나도록 했음.

10 국토연구 제112권(2022. 3)

취급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장소성적’ 중에서 문화 시설을 꼽을 수 있다. ‘행동목적’ 중 선전 활동과 ‘장소성적’ 중 문화 시설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Figure 4>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화 시설의 수치와 <Figure 9>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선전 활동의 수치가 모두 높은 것을 토대로 문화 시설의 용도 중 선전 활동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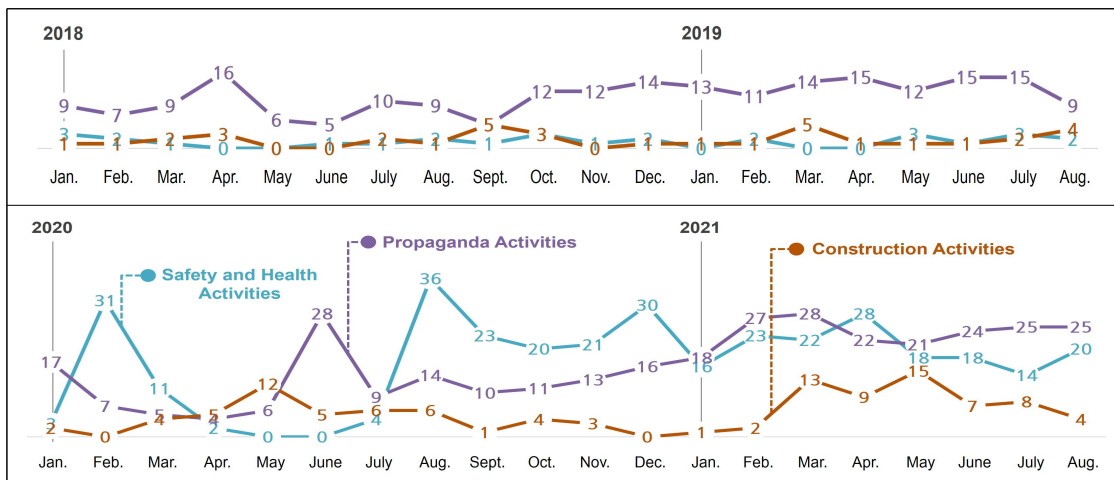
그러나 <Figure 9>에서 팬데믹 시기에 들어 선전 활동의 수치는 상당히 증가한 반면, <Figure 4>에서 문화 시설의 수치는 팬데믹 이전보다 급격히 감소하여 팬데믹 이전의 양상과 대조된다. 팬데믹 시기 증가한 선전 활동이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장소에서 이뤄졌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Figure 8 _ The Number of Photographs by Details Classified According to “Purpose of Action”



<Figure 9>에서 건설 활동은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추이가 증가한다. 이 기간 동안 로동신문에는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송신·송화지구의 주택단지 건설에 관한 보도사진이 다수 게재됐다.11) 이 시기의 건설 활동이 병원, 주택과 같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 건설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gure 9 _ Monthly Trend of “Purpose of Action”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Note: Safety and Health, Propaganda, Construction Activities in “Purpose of Action”.

11) 로동신문은 다음의 날짜에 해당 시설에 관한 보도사진을 게재함: 류경치과병원(2021년 3월 21일, 4월 18일, 5월 2일, 6월 14일), 옥류아동병원 (2021년 3월 21일, 6월 9일, 7월 19일), 송신·송화지구 주택단지 (2021년 3월 24일/25일/27일/28일/29일, 4월 2일/4일/19일/21일/24일/28일, 5월 3일/6일/9일/10일/12일/14일/16일/20일/23일/24일/25일/29일, 6월 11일).

4. 소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양을 범주로 한 로동신문 보도 사진을 ‘장소성격’, ‘인원규모’, ‘행동목적’으로 분류하고 비교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 평양은 국가 기념행사가 가능한 문화시설에, 국가 기념행사를 위해 다수의 인원이 모여, 각종 기념 활동을 하는 장소로서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다. 국외에서 북한의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평양의 교통 기반 시설을 거점으로 한 왕래 활동이 활발했으며, 각종 생산 활동이 이뤄졌다.

반면, 팬데믹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로, 로동신문에서 평양은 문화 시설보다는 생활 시설, 보건 시설, 산업 관련 시설이 강조된다. 둘째로, 그 이전보다 횡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국가 기념 기념행사를 위해 다수의 인원이 한 데 모인다. 마지막으로, 보건 시설 외 장소에서의 보건 활동, 문화 시설 외 장소에서의 선전 활동, 그리고 주민 생활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 시설과 생산 활동 사이의 간극에 관한 것이다. 팬데믹 시기 ‘장소성격’에서 산업 시설은 증가했으나, ‘행동목적’에서 생산 활동은 줄어들었다. 다음은 보건 시설 및 문화 시설과 보건 활동과 선전 활동 사이의 간극에 관한 것이다. 팬데믹 시기 ‘장소성격’에서 보건 시설과 문화 시설은 소폭 증가하거나 현격히 감소했지만, 보건 활동과 선전 활동은 상당히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시기의 병원과 주택 건설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구분되는 양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평양의 팬데믹 썬을 도출한다.

III. 평양 팬데믹 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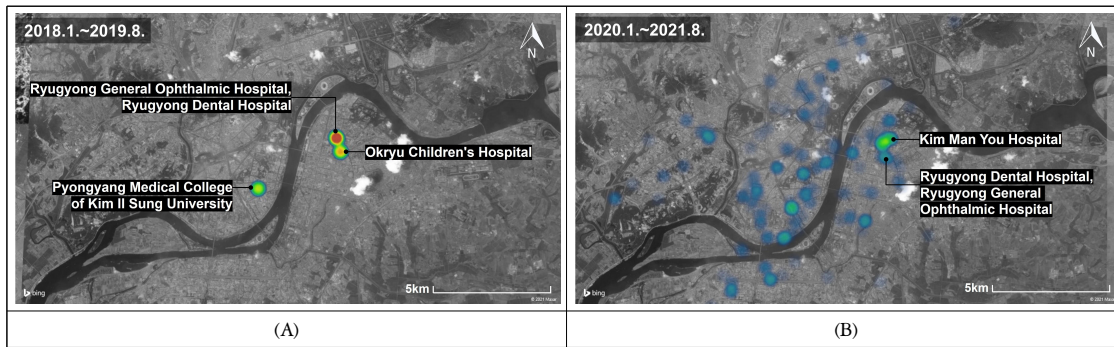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썬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한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엑셀 3D맵에 열 확산 정도로 시각화한다. 열의 확산 정도는 해당 장소가 보도된 횟수, 그곳에 모인 인원의 규모가 결정한다. 열 확산 정도가 시각화된 평양 지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시기의 것을 각각 생성한다. 두 기간 사이의 변화를 시각화하기 위한 키워드는 보건 활동, 선전 활동, 건설 활동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음을 앞서 확인한 ‘행동목적’이다.

1. 보건 활동 관련 평양 팬데믹 썬

‘행동목적’ 중 주민의 보건 활동이 이뤄진 장소는 <Figure 10>과 같은 분포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발생 전의 경우(<Figure 10> (A) 참조), 열의 확산이 몇 개의 장소에 집중된다. 이 시기에 평양에서 주민의 보건 활동이 집중된 장소는 류경치과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보건 활동이 보건 관련 시설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팬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주민의 보건 활동에서 이전과 구분되는 분포 양상이 나타난다(<Figure 10> (B) 참조). 열 확산 지점이 병원이 위치한 곳뿐만 아니라 평양 전반에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열의 확산 정도도 낮다. 이는 팬데믹 시기 주민의 보건 활동이 병원에 집중되기보다는 장소의 성격에 관계없이 지역 전체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비교적 열 확산이 집중된 장소는 김만유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으로 확인된다(<Figure 10>의 (B) 참조). 병원이라는 점에서 팬데믹 이전과 보건 활동의 내용이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 세

Figure 10_Pyongyang Heat Map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a)



Note: GCS: Location of the place reported in Rodong Sinmun photograph
 Data value: Pyongyang administrative district corresponding to the reported place
 Filter value 1: 1~5 levels in “Number of People”
 Filter value 2: Health Activities in “Purpose of Action”
 Source: Excel 3D Maps.

Table 2_Activities at Hospitals Reported in Photograph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Hospital Name	Behavioural Intention	Specific Activities	Number of photos	Ratio of COVID-19 Prevention activities
Kim Man Yu Hospital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Prevention of COVID-19	8	53.3%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Medical Staff Activities	6	
	Production Activities	Business Trips to Industrial Sites	1	
Ryugyong Dental Hospital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Prevention of COVID-19	5	38.4%
		Medical Staff Activities	2	
	Construction Activities	Commemorating the Construction of the Hospital	3	
Ryugyong General Ophthalmic Hospital	Propaganda Activities	The Ideological Practice of Medical Staffs	3	45.6%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Prevention of COVID-19	5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Medical Staff Activities	3	
	Construction Activities	Commemorating the Construction of the Hospital	1	
	Propaganda Activities	The Ideological Practice of Medical Staffs	2	

병원과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병원 방역 및 소독에 관한 내용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Table 2> 참조). 팬데믹 시기 평양 전반에서의 방역이 주요한 사회적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전 활동 관련 평양 팬데믹 썸

‘행동목적’ 중 주민의 선전 활동이 이뤄진 장소는 <Figure 11>과 같은 분포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의 선전 활동은 몇 군데의 장소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데, 중앙계급교양관, 과학기술전당, 인민 문화궁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으로 확인된다(<Figure 11> (A) 참조). 이 중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소성격’에서 문화 시설로 분류한 장소다. 이 시기의 주민의 선전활동이 대체적으로 문화관련 시설에 집중되어 행동의 목적과 장소의 용도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팬데믹 시기의 평양은 그 이전보다 다수의 장소에서 더 잦은 빈도로 더욱 다수의 인원이 모여 선전 활동을 한 것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Figure 11>

(B) 참조. 열의 확산 정도가 강한 순서에 따른 주민의 주요 선전 활동 장소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금속건재공장, 평양구두공장, 평양시1만세대살림집건설장(송신·송화지구), 금수산태양궁전이다. 마지막을 제외하면 모두 중공업, 경공업, 건설업이 진행되는 산업 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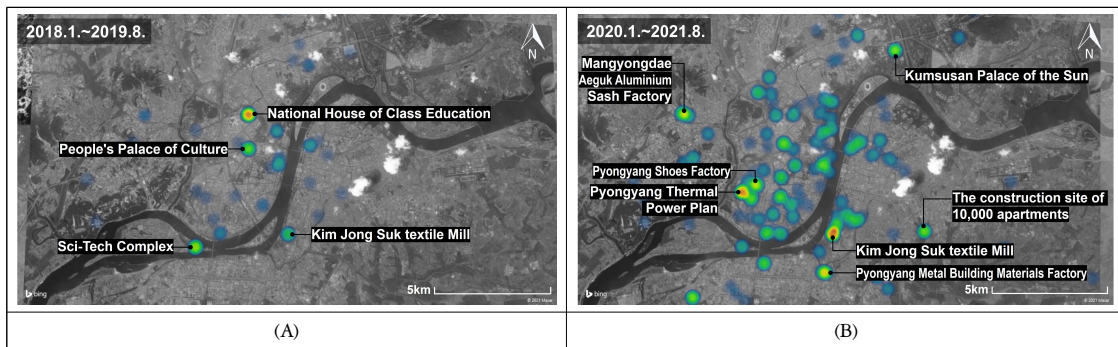
종합하면 팬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주민의 선전 활동은 그 이전보다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타난 한편,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 생산 활동보다 선전 활동

의 비중이 높아졌다. 선전 활동에 있어 행위와 장소 사이의 연관성이 약화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며, 이를 통해 팬데믹 시기 북한 산업 시설의 가동률 약화와 선전 거점으로의 역할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3. 건설 활동 관련 평양 팬데믹 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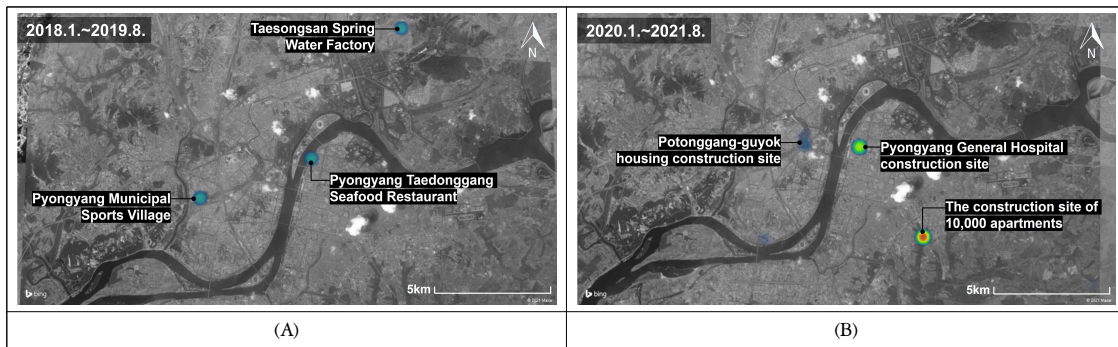
‘행동목적’ 중 주민의 건설 활동은 <Figure 12>과 같은 분포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 건설

Figure 11_Pyongyang Heat Map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b)



Note: GCS: Location of the place reported in Rodong Sinmun photograph
 Data value: Pyongyang administrative district corresponding to the reported place
 Filter value 1: 1~5 levels in “Number of People”
 Filter value 2: Propaganda Activities in “Purpose of Action”
 Source: Excel 3D Maps.

Figure 12_Pyongyang Heat Map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c)



Note: GCS: Location of the place reported in Rodong Sinmun photograph
 Data value: Pyongyang administrative district corresponding to the reported place
 Filter value 1: 1~5 levels in “Number of People”
 Filter value 2: Construction Activities in “Purpose of Action”
 Source: Excel 3D Maps.

활동의 결과물은 평양시 체육촌, 대성산샘물공장,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으로 확인된다(<Figure 12> (A) 참조). 주민의 여가 생활과 먹거리에 관련된 산업 시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팬데믹 시기 평양에서는 평양시1만세대살림집건설장과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의 건설 활동이 두드러졌다(<Figure 12> (B) 참조). 주택단지와 종합병원 같이 대규모이면서 여가보다는 주민 생활에 더욱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시설 건설에 주민 활동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4. 소결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전후로 비교 도출한 평양의 팬데믹 썬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귀결된다. 첫째로, 소독과 방역이 사회적 쟁점에 있어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평양 전역에 가시화된 보건 활동과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둘째로, 문화 시설에서 산업 시설로, 선전 활동이 이뤄진 장소의 성격이 전면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산업 시설의 생산력 고취나 생산 목표량의 제시보다, 정치적 선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¹²⁾ 다른 하나는 산업 시설의 생산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쟁점을 내보이기 위한 대체 무대로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로동신문의 보도 방식 변화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로동신문은 2021년 초반부터 산하 12개 부서에서 대외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고 대내 부서를 늘리는 개편을 실행했다(김인태 2021). 대내 부서의 확장은 사회교양 부문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이념관련 교양과 선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주민의 활동 장소 또한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교한 두 시기 동안 준공된 건축물에서 ‘실질적 생산성’과 ‘주민 생활에 인접한 대규모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보통강지구나 송신·송화지구와 같은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만성화된 경제난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라는 풀이도 팬데믹 시기에 들어 나타난 변화를 설명해준다.¹³⁾ 나아가 시각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건축물이 국가 대내외에 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내기 적합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종합하면, 평양의 팬데믹 썬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장소는 주택단지 건설현장이 위치한 사동구역 내 송신지구와 송화지구, 그리고 김만유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이 밀집한 대동강구역 중심부로 모두 대동강 남단 동측에 위치한다. 팬데믹 시대 평양은 대규모, 새것, 보건 위생이 전면으로 내세워졌으나, 실질적 생산의 가시성은 흐려진 도시다.

IV.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변화

1. 팬데믹 시대 새로운 보편성과 북한

코로나19는 세계에 동시적으로 새로운 보편성을 불러

12) 로동신문은 2020년 6월 6일부터 23일까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담긴 16장의 사진을 게재했음. 배경이 된 장소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장(2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청년공원아외극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료뫼무궤도전차사업소역전대, 중구역 내 미확인된 시설, 평양자동화기구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락랑궤도전차사업소, 평양블록코공장, 서평양기관차대, 김철주사범대학,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출판인쇄대학으로, 다수의 산업 시설을 포함함.

13)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내수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건설이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21).

일으키는 신호탄이 됐다. 스티븐 월트(Walt, Stephen M. 2020)는 거대한 전염병이 가져올 집단적 차원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말해 코로나19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¹⁴⁾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되어 세계를 바꿀 것이며, 시민들은 자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여 현재의 초(超)세계화(hyperglobalization) 시대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 그가 예측한 코로나 19가 불러올 변화다(Walt 2020). 우리 일상과 가까운 개인적 차원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사회’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 새로운 보편성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활동, 재택근무, 자급자족, 홈 트레이닝 등의 활성화가 꼽힌다.

최근 북한의 방역복 부대를 내세운 열병식, 국경 봉쇄, 보도 매체에서 대내 정책의 심화는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보편성, 즉 가속화된 국가주의, 초세계화에 대치되는 폐쇄성과 유사한 맥락이 발견된다. 북한이 전 세계의 동시적 쟁점을 평양을 무대로 한 극적 장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새로운 보편성에 관한 시각적 양상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에

대한 북한과 그 외 세계의 대처를 ‘특수성’이란 용어로 구분 지을 수 있는가?

팬데믹이 가져온 집단적·개인적 변화와 로동신문 보도사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시대의 이동(mobility), 개방(openness), 범세계주의(cosmopolitanism)의 측면은 각각 고정(stability), 폐쇄(closure), 국가주의(statism)로의 변동이 예견됐다. 개인적 차원에서 모임(crowd)과 접촉(contact)은 개인(person)과 비접촉(un-contact)으로의 변동이 가속화됐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로동신문 보도사진에도 나타난다면, 집단적 차원에서 해외를 드나드는 공항 관련 보도는 감소하고 국가 기념행사와 대규모 선전관련 보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정 또는 인민반 생활, 상업 및 레저 활동과 같은 소규모의 대면 활동에 관한 취재가 줄어들 것이다.

2. 로동신문 보도사진에 나타난 집단적 보편성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행기, 기차, 전동차 등을 포함한 왕래 활동이 줄어든 것을 앞서 썬 구성 요소 중

Table 3_ The Assumption about Rodong Sinmun Photographs as a New Normal Theater Caused by the Pandemic

Category	Social Change caused by the Pandemic	Normal before the Pandemic	New Normal by Pandemic	New Normal dramatization assumption based on Rodong Sinmun Photographs
Collective Level	A Strengthened State and a Reinforced Sationalism	Mobility, Openness, Cosmopolitanism	Stability, Closure, Statism	Reports on Nor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 will Decrease
	Citizens seeking National Government			National Commemorative Events and Large-scale Propaganda Activities will be reported in more Variety
	Retreat from Hyperglobalization			
Personal Level	Online activities	Crowd, Contact	Person, Un-contact	Reports on Small, Face-to-face Activities (Visiting/Commercial/Leisure Activities) will Decrease
	At-home Job			
	Self-sufficiency			
	Home Training			

Source: Walt, S. M., Niblett, R., Mahbubani, K., Ikenberry, G. J., O'Neil, S. K., Menon, S., and Nye Jr., J. S. et al.(2020), Modi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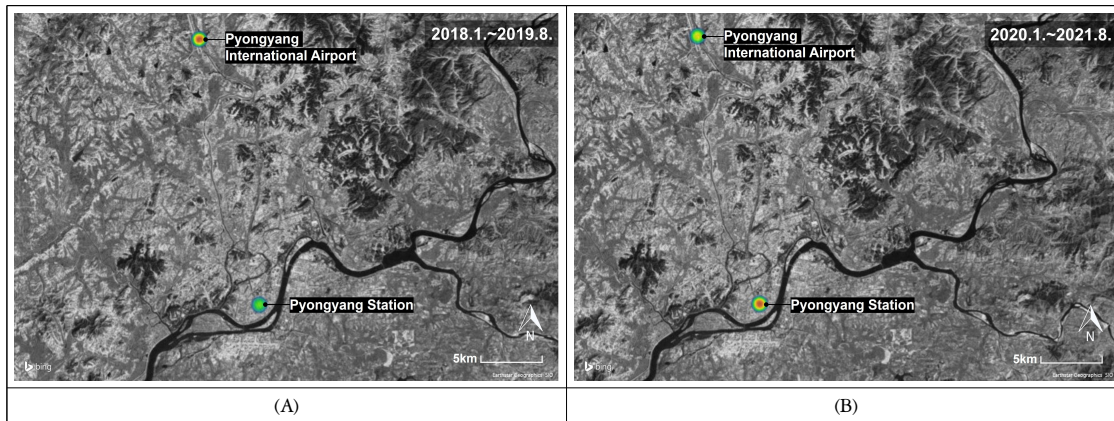
14) <https://foreignpolicy.com/2020/03/20/world-order-after-coronavirus-pandemic/> (2022년 11월 17일 검색).

‘행동목적’의 비교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왕래 활동이 일어난 주요 거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Figure 13>에서 나타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에는 평양국제비행장이 평양역보다 더 높은 열 확산 정도를 보이는 반면(<Figure 13> (A) 참조), 그 이후에는 반대로 평양역의 열 확산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Figure 13> (B) 참조). 이는 국제공항을 통한 국내외 이동이 내부 이동에 비해 활발했던 것과 달리, 팬데믹 초기를 기점으로 기차역을 통한 국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됐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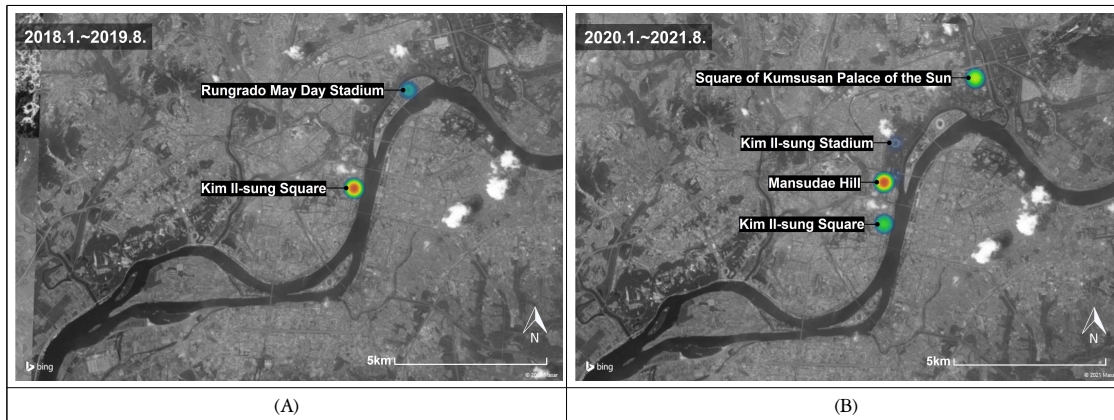
국가 기념행사와 대규모 선전 활동의 거점과 모인 인원의 정도도 팬데믹 시기에 들어 변화가 나타났다

Figure 13_Pyongyang Heat Map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d)



Note: GCS: Location of the place reported in Rodong Sinmun photograph
 Data value: Pyongyang administrative district corresponding to the reported place
 Filter value 1: 1~5 levels in “Number of People”
 Filter value 2: Travel Activities in “Purpose of Action”
 Source: Excel 3D Maps.

Figure 14_Pyongyang Heat Map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e)



Note: GCS: Location of the place reported in Rodong Sinmun photograph
 Data value: Pyongyang administrative district corresponding to the reported place
 Filter value 1: 4~5 levels in “Number of People”
 Filter value 2: Propaganda and Commemorative Activities in “Purpose of Action”
 Source: Excel 3D Maps.

(<Figure 14> 참조).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 동안 기념과 선전 활동을 위해 500명 이상이 모인 장소는 김일성광장과 5월1일경기장이다(<Figure 14> (A) 참조). 반면, 팬데믹 시기에는 같은 목적이 만수대인덕, 금수산태양궁전광장, 김일성광장에서 이뤄졌다(<Figure 14> (B) 참조). 대규모 기념행사 및 선전이 이전보다 다양한 목적하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종합하면 왕래 활동과 다수의 인원이 모인 기념 및 선전 활동 거점은 팬데믹 시기에 들어 모두 변동됐다. 나아가 최근의 로동신문 보도사진은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보편성을 극적으로 표출한다.

3. 로동신문 보도사진에 나타난 개인적 보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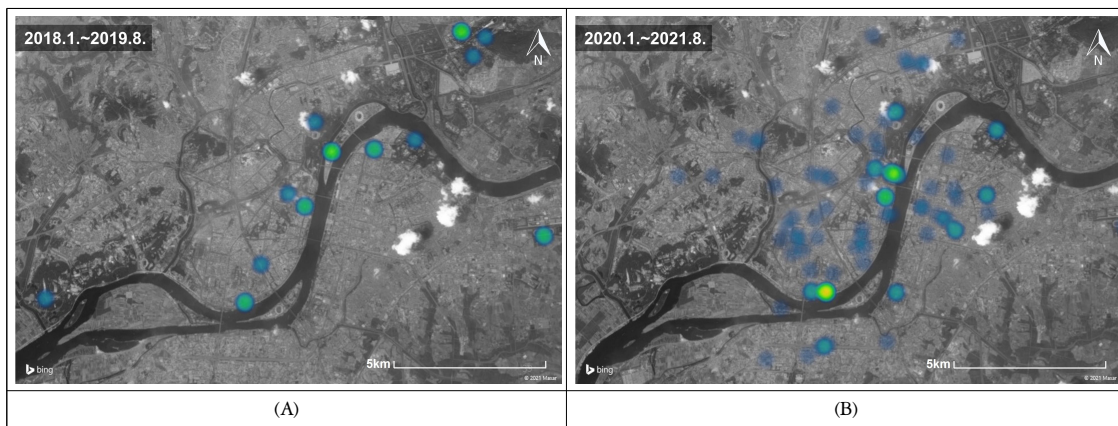
로동신문 보도사진이 개인적 차원에서 새로운 보편성을 보여주는지 검토하기 위해 방문·상업·레저 활동의 거점을 코로나19 발생 시기 전후로 비교했으며, 그 결과는 <Figure 15>와 같다. 앞서 제시한 새로운 보편성에 대한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인원이

모인 대면 활동은 팬데믹 시기에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시기의 평양은 가정했던 것과는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Figure 15>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에 이뤄진 소규모 방문·상업·레저 활동은 장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만큼 특정 장소에서 이뤄졌다(<Figure 15> (A) 참조). 반면, 그 이후 시기에는 해당하는 활동 장소가 개수를 세기 어려울 만큼 평양 전반으로 확산됐다(<Figure 15> (B) 참조). 이는 팬데믹 시기의 로동신문이 소수의 인원이 모인 상황을 그 이전보다 더욱 세부적 단계까지 시각적으로 증계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로동신문은 코로나19의 발생 이후에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극장의 무대로서 도시의 역할과 로동신문에 규격화된 극적 장치가 결합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은 시국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시각적으로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일상의 가시화를 위해 더욱 일상 공간에 개입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북한은 집단적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일상적 공간까지 증계하는 버라이어티 극으로서의 성격을 가속화

Figure 15 _Pyongyang Heat Map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f)



Note: GCS: Location of the place reported in Rodong Sinmun photograph
 Data value: Pyongyang administrative district corresponding to the reported place
 Filter value 1: Only 1 level in “Number of People”
 Filter value 2: Visiting, Commercial and Leisure Activities in “Purpose of Action”
 Source: Excel 3D Maps.

하고 있다.

V. 결론

이 논문은 코로나19의 범유행 속에서 북한이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과 달리 보도 매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처 방식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주목하고자 했다. 도시에서 씬은 주민이 자신이 보는 동시에 보이기 원하는 연극성을 기본으로, 이러한 성향이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어떤 도시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 외관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의 상황과 그 도시를 살아가는 주민의 합이라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가정, 교육, 근로, 선전 등과 관련된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도한다. 만약 로동신문 보도사진이 도시를 무대로 한 주민의 연극이라면, 현재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주민의 생활이 합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통해 북한의 수도 평양의 팬데믹 씬을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팬데믹 씬은 씬의 정의, 팬데믹 이전 시기과의 비교 분석, 분석 결과의 맵핑 단계를 거쳐 도출된다. 주민 생활을 다룬 로동신문 보도사진은 장소, 주민이 모인 규모, 그들이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씬을 ‘장소성격’, ‘인원규모’, ‘행동목적’의 합으로 보고 이러한 씬의 구성요소에 따라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살펴 보고자 했다.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전후로 보도사진을 나눠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한 후, 분석 내용에 위치 정보를 더해 평양 지도에 시각화했다.

평양의 팬데믹 씬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최근 북한의 사회적 쟁점에서 소독과 방역은 절대 우위를 차지한다. 도출한 평양 지도에 떠오른 보건 활동과 관련 장소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선전 활동을 위한 장소가 광

장, 박물관, 혁명사적지, 경기장을 포함하는 문화 시설에서 공장과 기업소, 수리소를 포함하는 산업 시설로 전환됐다. 여기에는 팬데믹 시기 산업 시설의 생산력 저하, 정치적 선전의 필요성 강화, 로동신문의 대내 부서 확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생산성’에서 ‘주민 생활에 인접한 대규모 경관’으로, 도시 건설의 지향점이 변화가 나타났다. 평양의 팬데믹 씬을 시각화하는 장소는 이들이 모여 있는 대동강 남단 동측에 위치한다. 외관에 있어서는 대규모, 새것, 보건 위생이 전면에 내세워진 도시며, 그러나 실질성 생산성의 가시성은 약화된 도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처 방식과 더불어 폐쇄적이며 비밀스러운 국가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속화됐다. 그러나 전염병이 전 세계에 가져온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나타난 북한의 상황을 특수성이란 용어에 한정 지을 수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팬데믹은 그 이전보다 사회 전반을 고정적이고, 폐쇄적이고, 국가주의적 성향에 가깝게 이동시켰고, 우리의 일상은 비대면으로 이뤄진 개인 생활로 채워졌다. 이러한 새로운 보편성에 대해, 로동신문 보도사진으로 본 팬데믹 시대의 북한은 그 일부를 극화하고 있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로동신문에 규격화된 극적 장치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시각화한다. 하지만 일상 공간에는 팬데믹 전보다 더욱 개입함으로써 비대면과 개인 생활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나타났다. 북한이라는 극은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일상을 모두 중계하는 버라이어티 장르이며, 팬데믹은 이러한 성격을 향한 가속 장치다.

이 논문은 북한에 대한 낯장의 이미지를 “지도 제작자의 시점”(cartographic perspective, Szerszynski and Urry 2006, 122)에서 하나의 지도로 재구성하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르신스키와 어리(Szerszynski

and Urry 2006, 122)에 따르면 세계를 지구본을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하나의 권력으로 연결된다. 북한 주민은 시야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이들에 비해 자신의 세계를 일종의 팝업북(Pop-up book)처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토에 대한 통치는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이뤄질 것이다. 팬데믹 관련 공간적 대응 체계에 투영된 권력의 시야를 탐구함으로써 북한 사회에 대한 다른 방향의 이해가 나올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참고문헌 ●●●●●

1. 구글 뉴스. <https://news.google.com/covid19/map> (2021년 11월 1일 검색).
Google News. <https://news.google.com/covid19/map> (accessed November 1, 2021).
2. 권현익, 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Kwon Heon Ik and Chung Byungho. 2013.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Paju: Cjangbi.
3. 김상현, 장원호. 2018. 도시 썬 개념을 활용한 서울의 지역별 문화 특징 이해. *지역사회학* 19권, 3호: 113-146.
Kim Sanghyeon and Jang Wonho. 2018. Understanding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eoul Using the Concept of the 'Urban Scene'. *Korean Regional Sociology* 19, no.3: 113-146.
4.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1. 2021 통일연구원 북한도시포럼 토론, 12월 1일, 서울.
Kim In-Tae. Senior Resea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1. Discussion with the author at KINU North Korea Urban Forum in 2021, 1 December, Seoul.
5. 서울신문. 2021. 北, 두 달 만에 아파트 딱딱...살림집 건설에 총력. 10월 10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0500034> (2022년 1월 5일 검색).
The Seoul Shinmun. 2021. North Korea puts all effort into building apartments in two months. October 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0500034>
- (accessed January 5, 2022).
6. 오승준, 하승희. 2020.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4권, 2호: 1-38.
Oh Seungjun and Ha Seunghee. 2020. Nor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Focus on the Rodong Sinmun.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4, no.2: 1-38.
7. 이규창, 나용우, 이상신, 이우태, 조성은. 2020.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Lee Gyuchang, Na Yongwoo, Lee Sangsin, Lee Wootae and Jo Sungeun. 2020. *Humanitarian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Joint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Focused on COVID-19*. Seoul: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8. 이용희. 2021.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식량 위기와 대책. *통일전략* 21권, 2호: 67-102.
Lee Yong Hee. 2021. North Korea's Food Crisis due to Covid-19 and Countermeasures. *Unification Strategy* 21, no.2: 67-102.
9. 전상인, 김미영, 조은희. 2015. 국가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계획* 50호: 21-40.
Jun Sangin, Kim Miyoung and Cho Eunhee. 2015. Power and space: The capital planning in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Planning Association* no.50: 21-40.
10. 정병호. 2010.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1-42.
Chung Byungho. 2010. Symbol and ritual in the theater state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2, no.2: 1-42.
11. 한국언론학회, 편. 1994. *언론학원론*. 서울: 범우사.
T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ed. 1994. *Mass Communication*. Seoul: Bumwoosa.
12. *BBC News*. 2021. North Korea rejects offer of almost three million Covid-19 jobs, September 1,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408913> (accessed November 1, 2021).
13. Clark, T. N. 2007. Making Culture Into Magic: How Can It Bring Tourists and Residents?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2, no.1: 13-26.
14. Geertz, C. 1980. *Negara: The Theatre State in 19th Century Bali*.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 Doubleday.

16. _____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in face-to-face behav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7. Szerszynski, B. and Urry, J. 2006. Visuality, Mobility and the Cosmopolitan: Inhabiting the World From Afar.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 no.1: 113-131.

18. *The Washington Post*. 2021. What’s happening inside North Korea? Since the pandemic, the window has slammed shut. September 9,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orth-korea-kim-pandemic/2021/09/08/31adfd74ff53-11eb-87e0-7e07bd9ce270_story.html (accessed November 2, 2021).

19. Wada, H. 2012. 북한현대사. 남기정 역. 서울: 창비.
Wada, H. 2012. *Kita Chōsen gendaishi*. trans. Nam Kijcong. Seoul: Changbi Publishers.

20. Walt, S. M., Niblett, R., Mahbubani, K., Ikenberry, G. J., O’Neil, S. K., Menon, S., and Nye Jr., J. S. et al. 2020. How the World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Foreign Policy*, March 20, <https://foreignpolicy.com/2020/03/>

20/world-order-after-coronavirus-pandemic/ (accessed November 17, 2021)..

- 논문 접수일: 2022. 1. 20.
- 심사 시작일: 2022. 1. 27.
- 심사 완료일: 2022. 3. 2.

요약

주제어: 팬데믹, 코로나19, 도시 썬(scene), 로동신문, 평양, 북한

이 논문은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통해 북한의 수도 평양의 팬데믹 썬(scene)을 고찰하고자 한다. 도시에서 신은 주민이 자신이 보는 동시에 보이기 원하는 연극성을 기본으로, 이러한 성향이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 논문은 신을 ‘장소성격’, ‘인원규모’, ‘행동목적’의 합으로 보고 이러한 신의 구성 요소에 따라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전후로 보도사진을 나눠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한 후, 분석 내용에 위치 정보를 더해 평양 지도에 시각화했다. 평양의 팬데믹 썬을 시각화하는 장소는 대동강 남단 동측에 위치한다. 외관에 있어서는 대규모, 새것, 보건 위생이 전면

세워진 도시지만, 실질적 생산성의 가시성은 약화된 도시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염병이 전 세계에 가져온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나타난 북한의 상황을 특수성이란 용어에 한정 지을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로동신문에 규격화된 극적 장치는 팬데믹이 전 세계에 가져온 새로운 보편성을 일부 보여준다. 하지만 일상 공간에는 팬데믹 전보다 더욱 개입하여 비대면과 개인 생활로 요약되는 일상적 차원의 새로운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북한이라는 극은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일상을 모두 중계하는 버라이어티 장르이며, 팬데믹은 이러한 성격을 향한 가속 장치다.

